

보도일시 (인터넷) 2026. 7. 30.(목) 11:00
(지면) 2026. 7. 31.(금) 조간

배포 2026. 7. 30.(목) 06:00

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차 제안공모 실시

- 7. 31.~10. 28. 제3차 제안공모 시행, 2028년 하반기 착공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에 위치한 웅동2단계(2구역, 25만㎡)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제안공모를 7월 31일(금)부터 10월 28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부산항 신항의 물류·제조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가 2025년 10월에 최초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2026년 6월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성을 검증했다. 특히,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4로 산출되어 경제적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3차 제안공모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공모 기간 내 최초 제안자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2026년 11월까지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7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북권 1단계(169만㎡), 웅동 1단계(249만㎡) 및 서권 1단계(50만㎡) 사업이 운영 중이며, 남권(116만㎡) 및 웅동 2단계(1구역)(85만㎡) 사업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배후단지에는 69개 업체가 입주하여 항만 물류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사업으로 복합 물류 및 제조 기능이 가능한 배후단지가 공급됨에 따라 국내외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 민간 자본 유입으로 고용 창출, 항만 연관 산업 성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2구역) 항만배후 단지 개발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일정 수준 검증된 사업으로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이 접목된다면 부산항 신항의 물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3자 제안공모 절차를 거쳐 최적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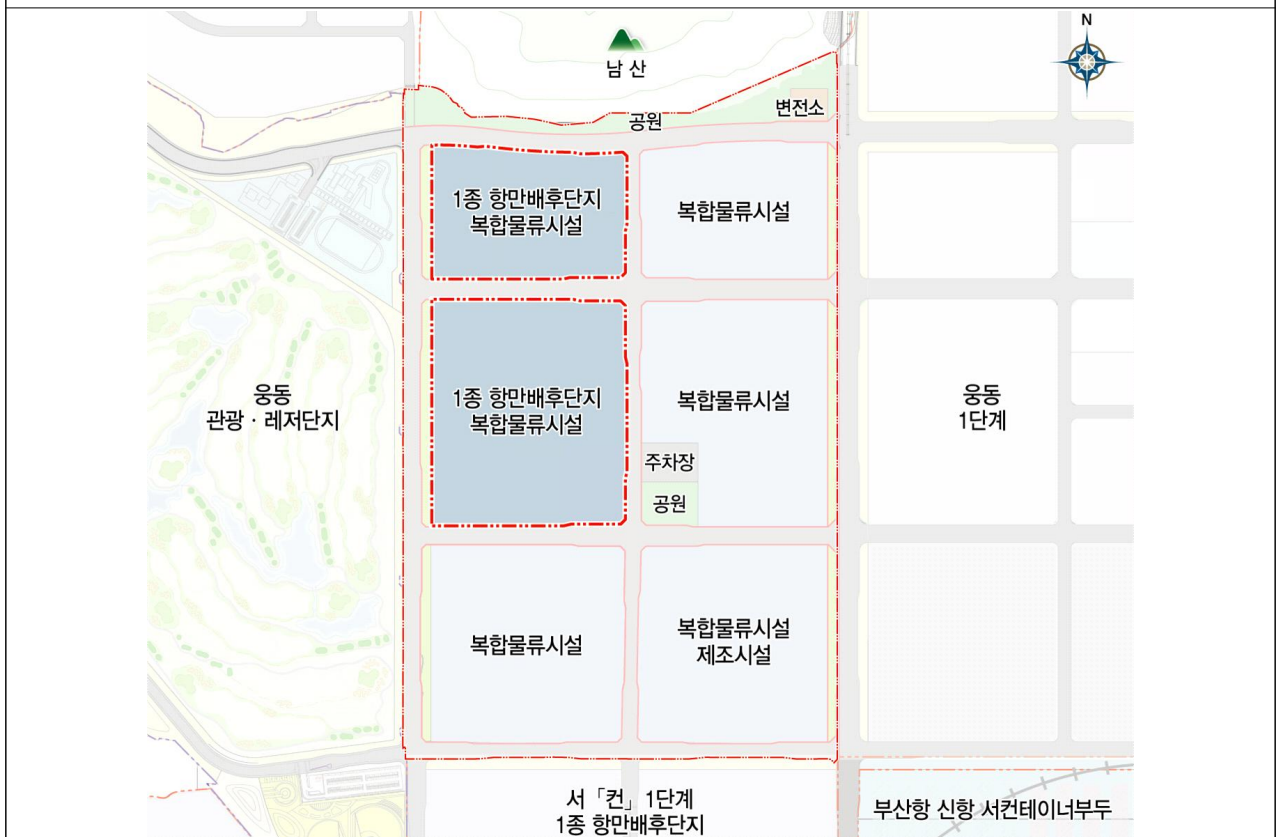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우봉출 (051-773-5960)
		담당자	사무관	서동현 (051-773-5969)



참고 1 사업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사업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참고 2

